



아·태지역 우주협력 시발

아·태지역 우주기술 및 이용 협력 대회 (APC-MCSTA: Asia-Pacific Conference o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Space Technology and Applications)는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한국 4개국이 주도국가로서 이지역 국가간 우주기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아·태지역의 우주기술협력 증진 및 공동개발 사업을 논의하는 대회로서 매년 개최되며, 이번 대회는 제 3차 대회로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것은 한국의 이지역에서의 우주분야 위상을 강화하는 전기가 되었다.

본 대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유럽의 ESA (European Space Agency)를 모델로한 아·태지역 우주기술 및 이용 협력기구의 창설에 있으며, 각국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안을 협의 중에 있다.

개최배경

아·태지역 우주기술 및 이용 협력 대회의 시발점은 '92년 12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15개국, 1개의 국제기구에서 각국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우

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처 차관을 단장으로한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제 1차 대회는 '94년 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어 16개국, 5개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제 2차 대회는 '95년 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2개국, 4개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개최하였고, 파키스탄 대회에서 제 3차 대회를 '96년 5월 한국에서 개최토록 결정·의결하였다.

제3차대회 한국개최

제 3차 아·태지역 우주기술 및 이용 협력대회의 한국개최 공식 선포후 항공우주연구소는 과학기술처의 주관하에 2회의 준비위원회 (IPC: International Program Committee)를 가지면서,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준비하였다. 이들 회의에는 한국, 중국, 태국, 파키스탄, 호주의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3차 대회의 개최일정 확정, 초청장 문안작성, 접수된 논문들 검토, 그리고 소형 다임무위성 공동개발 사업 논의 및 3차 대회의 본회의에서 발표될 소형 다임무위성 관련 공동 제안서 검토등 대회에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점검하였다. 한국에서는 주로 과학

기술처 국장, 항공우주연구소의 김진철 실장이 회의에 참가하여 제 3차 대회를 준비하였다. 또한 이 대회는 국내·외 우주기술 관련 산·학·연·관의 후원하에 이루어졌으며, 항공우주연구소 내에는 사무국을 설치·운영하여 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한 이래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제 3차 대회는 아·태지역의 우주기술협력 증진을 목표로 '96년 5월 27일부터 5월 31일 까지 4박 5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15개국 (호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한국, 몽고, 파키스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2개의 국제기구 (ESA, ISU: International Space University), 그리고 미국의 TRW사와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의 국내·외 311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대회 첫날인 5월 27일은 본회의의 전의 예비회의로 소형 다임무위성, 위성을 이용한 재해방지 시스템, 통신위성 기술 및 응용 관련 합동 실무회의, 아·태지역 우주기술 및 이용 협력기구의 창설을 위한 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ttee) 회의, 연락위

원회 (Liaison Committee) 회의, 본회의 세부일정을 확정하는 준비위원회 (IPC) 회의가 있었다. 5월 28일의 본회의는 장근호 소장 (항공우주연구소)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임창열 과학기술처 차관의 환영사, 호주, 중국, 파키스탄, 태국, 한국 대표들의 아·태지역 우주기술협력 증진에 대한 기초연설



개회식 장면

을 하였다. 오후에는 5월 27일 검토된 각 위원회의 보고서들이 참가한 각국의 대표들에게 발표되었으며, 9개의 초청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5월 29일은 학술발표의 날로 5개 분야로 나뉘어 위성기술 개발 및 응용, 지상국 및 발사체 관련 기술에 대하여 42개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5월 30일은 공개 토론회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관심사인 소형 다임무위성 공동개발 사업의 추진방안, 아·태지역 우주기술 및 이용 협력기구 발족 추진, 그리고 아·태지역 우주기술개발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공동활용 방안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후에는 기술견학으로 한국 통신의 용인 관제소와 서울 근방의 현대전자를 방문하였다.

5월 31일은 대회 마지막 날로 전날 공개 토론회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 3차 대회를 마무리짓는 권고안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참가한 각국의 의견을 물어 수정한후 제 3차

아·태지역 우주기술 및 이용 협력대회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회 주요결과 및 향후발전방향

대회 주요결과는 4가지로,

첫째는 아·태지역의 공동 협력과 제 도출을 위한 노력으로서 소형 다임무위성 공동개발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작성된 공동 제안서등 더 많은 나라의 참여를 위하여 작성된 초안을 기초로 이지역의 각국에 회람하여 참여의사를 금년말까지 확인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여의사 확인후 소형 다임무위성 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의 초안을 이지역의 각국에 회람하여, 의견 반영후 수정하여 각국의 정부승인하에 추진하기로 추천되었다.

두번째로, 아·태지역의 우주기술개발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공동활용 방안은 우주분야의 시설, 인력, 장비를 보유한 국가와 공동활용을 희망하는 국가간의 설문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든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번째로, 아·태지역 우주기술 및 이용 협력기구의 창설은 유럽의 ESA를 모델로 하여 이지역의 우주협력기구를 창설한다는 취지아래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은 관계로 각국의 합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되나,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이지역의 각국에 회람하여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년의 제 4차 대회는 바레인 정부의 승인을 받아 바레인에서 개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폐막되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아·태지역은 각국의 기술 차이와 문화적, 정치적 배경이 매우 상이한 관계로 각국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간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이지역의 우주개발 의지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주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번 제 3차 아·태 우주기술 및 이용 협력대회는 이지역의 경제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으며, 아·태지역의 점증하는 우주시장 규모와 경제력 향상,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의 잠재성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야 할 것으로 느꼈다.